

입계등정

LG産電(株), 조세의 날 금탑 산업훈장 수상

LG産電(株)(代表: 李鍾秀)가 제31회 조세의 날 기념식에서 영예의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한승수 전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 임채주 국세청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은 모범납세 회사 및 개인에게 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을 수여한 것으로 LG산전은 지난 '95년도에 법인세 75억과 기타 세목으로 430억을 내는 등 총 505억원의 세금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납부하여 이날 최고의 영예를 누리게 된 것이다. LG산전은 엘리베이터, 공장자동화설비 및 중전기 등 산업용 전기·전자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LG그룹의 일원으로 1987년 순수 민간 자본으로 설립, 불모지나 다름없는 이땅의 산업용 전기·전자 분야의 사업을 개척해 왔으며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94년도에 기업공개를 실시하고, '95년도에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금성계전, 금성

기전을 흡수 합병하여 자본금 1,018억원, 종업원 1만명, 매출 2조원에 육박하는 국내 최대의 산업용 전기·전자 제조회사이며 2005년 세계 10대 산업용 전기·전자기기 회사로 성장, 발전을 위해 "도약 2005"라는 Vision을 수립하는 등 사업구조 고도화 추진과 세계적 관점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Q.C.L.(품질, 비용, 납기)혁신, Global 인재 육성 및 현장 중심의 혁신 활동을 가속화 하고 있다.

한편 LG산전은 매출목표를 1조8천5백억원으로 정하고 투자를 2,600억원으로 책정하였으며, 또한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조직망을 대폭 확대하여 세계 전역에서 판매와 A/S가 가능하며, 날로 증가하는 지역별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96년도에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지에 현지 생산공장을 건립하는 등 세계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LG電線(株), 무공해 난연튜브 국산화

LG電線(株)(代表: 權攸久)가 불에 잘 타지 않고 독성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무

공해 난연 튜브를 개발했다.

LG전선은 2년여의 연구끝에 미국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무공해 난연 튜브의 개발에 성공 美國보험업자가입협회(UL)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모니터나 전자레인지 같이 고온이 발생하는 전자기기의 내부 배선과 각종 와이어의 절연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최근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튜브제품의 경우 주로 할로겐계(브론 염소등) 난연제를 사용해 화재때 독성과 부식성이 강한 가스를 발생시키는데 비해 이 회사가 개발한 무공해 난연튜브는 불에도 잘 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독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발제품이 UL로부터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내 튜브 시장에서의 진출이 크게 활기를 띠 것으로 보고 있다.

啓洋電機(株), 신제품 5종 개발 시판

啓洋電機(株)(代表: 李相翊)가 최근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신제품 5종을 개발하고 혁신적인 애프터서비스 제도를 도입, 본격시판에 나섰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햄머드릴, 그라인더 톱, 고속절단기 등이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중 햄머드릴은 핸들과 몸체 결합부에 댐핑고무를 끼워 진동을 최대한 줄였으며 천공시간도 동급 경쟁 제품보다 최고 30초이상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라인더 ACT-100S, 100SN 등은 출력이 790W로 동급 제품에 비해 2배정도 성능을 낼 수 있는 데다가 브러쉬 홀더를 내장, 그립성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동급 최고의 내구성을 갖고 있으며 DGJ-100K도 조

만간에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톱날의 호환성이 높고 동급 최강력모터(550W)를 채용한 JSV-65는 로킹바를 사용해 바퀴 교체가 쉽고 적은 힘으로도 작업이 가능한 뉴 HC-14D를 개발했다.

한편, 동사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서비스 혁신과 함께 영업망·직영 서비스센터 확충, 해외 현지판촉 강화등 공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신제품을 포함한 전제품에 대해 구입후 30일 이내 하자발생시 무조건 새제품으로 바꿔주는 무상교환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도입하는 한편 1년 이내 동일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해주는 서비스 대혁신, 만족보장 순회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상주원을 파견 해외홍보 및 판촉강화로 현지 시장점유율 제고에 전력을 기울릴 방침으로 을 매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35% 늘어난 1천2백억원 규모로 내다보고 있다.

大韓電線(株), 인도 荒引銅線공장 가동

大韓電線(株)(代表: 兪彩濬)가 인도 뉴델리 근교 하리아니주의 비왈공단안에 연산 6만t 규모의 전선, 원재료인 荒引銅線을 생산하는 합작 공장을 완공,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준공식에는 薛元亮 대한전선회장을 비롯해 崔大和 주인도 한국대사, 합작 파트너인 일본 도덴사와 인도 광업성 및 하리아나 주정부 관계자등 1백2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93년 9월 대한전선과 일본의 종합상사인 도덴사, 인도 현지 업체인 델톤케이블사등 3개국 기업이 합작 설립한 TDT코퍼사의 현지 공장은 연간 6만t 규모의 직경 8mm급 황인동선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상 가동때 1억5천만달러의 매출이 예

상되고 있다.

이 현지 합작공장의 총투자 규모는 2천만 달러이며 자본금 5백만달러의 출자비율은 대한전선이 63.5%, 일본 도덴사가 26.5%, 인도 델톤케이블이 26.5%로 돼 있다.

대한전선은 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황인동선의 해외 현지 생산체제를 갖춰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현지 공장 가동을 계기로 경제개혁 및 자유화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도로 전력 통신망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구축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인도의 전력, 통신케이블 및 마그네틱 와이어시장 등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